

정책 하이라이트

1.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ASEAN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강화 노력

● 개요

- '07년 1월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는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정상이 참석하여 역내 에너지안보 강화를 주제로 에너지효율 및 절약, 화석연료 이용,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에너지협력 태스크포스(Energy Cooperation Task Force; EAS/ECTF)'를 구성할 것을 합의하였음.
- 일본은 이와 관련하여 ASEAN 회원국의 역량구축 및 에너지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지원을 밝히고 세부 사업내용을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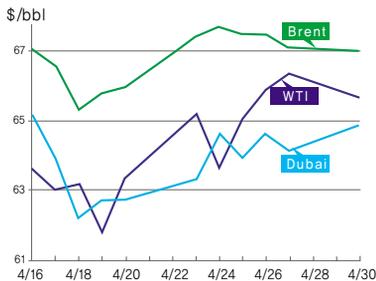
● 세부 내용

- ASEAN은 기존 동북아 3국을 포함하는 ASEAN+3를 확대하여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ASEAN+6를 구상하고 있음. 이는 ASEAN을 중심으로 동쪽에 한·중·일 3국과 인도라는 거대한 에너지소비시장을 둔 대규모 에너지벨트를 형성하려는 구상임.
- 한편, 일본은 필리핀 세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주요 내용

- 📌 정책 하이라이트 / 1
- 📌 해외에너지 정책/시장 동향 / 13
- 📌 국내외 정책연구 / 21
- 📌 연구원 동정 / 23

국제유가추이



평균가격(2007. 4. 16~4. 30)

WTI	Brent	Dubai
64.26	66.81	63.85



'Fueling Asia-Japan's Cooperation Initiative for Clean Energy and Sustainable Growth' 라는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EAS 회원국, 특히 ASEAN 회원국의 역량구축 및 에너지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지원을 밝힌 바 있음.

- 일본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EAS/ECTF 1차회의(06.3)에서 아래의 4개 사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20억 상당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 에너지효율 및 절약 촉진사업 : ①향후 5년간 1,000명의 인력양성 교육과 100명의 일본 전문가 파견, ②이를 위해 일본 에너지절약센터 산하에 아시아 에너지절약 협력센터 설립
 - 바이오 에너지 이용 촉진사업 : ①향후 5년간 500명의 인력양성 교육, ②이를 위해 일본 NEDO 산하에 아시아 바이오매스 에너지 연구센터 및 아시아 바이오매스 에너지협력 촉진 사무소를 설립하여 바이오연료 생산 및 표준화 관련 연구와 세미나 등 사업을 시행
 - 청정석탄 이용 촉진사업 : ①향후 5년간 500명의 인력양성 교육, ②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석탄액화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문가 양성 및 석탄액화의 상용화를 촉진하며, 일본은 이에 관한 기술협력 추진
 - 에너지 빈곤 퇴치사업 : EAS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력 인프라 구축, 농촌 전화(電化), 에너지효율 및 절약 등 에너지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추진에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하며, 이 사업의 창구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담당

● 시사점

- 일본은 ASEAN+3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ASEAN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음. 그러나 최근 중국이 막대한 에너지소비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3국은 세계 곳곳에서 자원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임.
-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실질적으로는 ASEAN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은 그 동안 구축해온 ASEAN 회원국들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함으로써 자원확보를 원활히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ASEAN은 에너지자원 공급처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이 지

역에 대한 관심을 높여 ASEAN 회원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jgj1234@keei.re.kr)

2. 유럽 집행위원회 탄소배출 국가할당계획(NAP) 승인

● 개요

-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배출권거래제 2단계('08~'12년)에 적용되는 국가할당계획(National Allocation Plan)을 승인함.

● 세부내용

-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27개국 중 18개국이 제출한 국가할당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일부국가의 경우 배출할당량을 대폭 삭감하였음.

국 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할당량 (백만톤)	제출안 대비 삭감율(%)
오스트리아	30.7	-6.4
벨기에	58.5	-7.6
체코	86.8	-14.8
프랑스	132.8	0
독일	453.1	-2.5
그리스	69.1	-8
아일랜드	21.15	-6
라트비아	3.3	-57
리투아니아	8.8	-47
룩셈부르크	2.7	-40
몰타	2.1	-30
네덜란드	85.8	-5.1
폴란드	208.5	-26.7
슬로바키아	30.9	-25
슬로베니아	8.3	0
스페인	152.3	-0.26
스웨덴	22.8	-10
영국	246.2	0
합 계	1,623.85	7.1



- 오스트리아의 제출안을 6% 삭감하여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할당량을 30.7백만 톤으로 승인함.
- 프랑스의 경우, 연간 138백만 톤의 최초계획을 변동 없이 승인함.
- EU 국가중 배출량 3위 국가인 폴란드의 경우, 제출안 26.7%를 감축한 연간 208백만 톤으로 승인함.
- 체코의 경우, 15%를 줄인 연간 86.8백만 톤으로 승인함.
- 폴란드 및 체코는 이와 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여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제소를 고려중임.
- 유럽 집행위원회의 이와 같은 긴축조정에 따라 2단계('08~'12년)에 적용되는 유럽탄소시장의 이산화탄소 톤당 가격은 '07년 연중 최고치인 17.5 유로를 기록하였음.

(CarbonPositive, 2007.4.2)

3. 프랑스, 전력시장 완전 자유화 실시

● 개요

- 오는 7월 1일, 프랑스는 전력시장을 완전 자유화하여 공급 부문에 경쟁체제를 강화할 예정임.
 - 이로 인해 경쟁적인 가격이 형성되고,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 세부내용

- 지금까지는 EdF가 전력의 발전, 송배전 및 판매 부문을 독점하고 있었으나,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EdF는 송배전 부문만 담당할 계획임.
 - '00년 연간 40GWh 이상의 산업용 및 상업용 소비자에게 선택권 부여
 - '03년 40GWh 한도를 16GWh로 축소, '06년 16GWh 한도를 9GWh로 축소
 - '07년 가정용 소비자 대상 시장 완전 개방
- 한편, 발전과 판매부문에서 다음 회사들의 진출 및 성장이 기대됨.

- 수에즈(Suez) : 프랑스와 벨기에의 합작회사이며 유럽에서 여섯 번째로 큰 가스 회사임. 벨기에에서 망 운영과 판매를 맡고 있음.
- 디렉트 에너지(Direct Energie) : 프랑스의 전력 판매회사이며 그린 에너지를 중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 포워(Poweo) : 프랑스의 첫 번째 민영 발전회사로 '03년부터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 프랑스 가스공사(GdF) : 천연가스의 수송과 판매를 맡고 있으며 프랑스 가스 시장의 77%를 점유하고 있음. 전력시장 자유화와 함께 수에즈와 합병할 계획임.
- 전력시장 자유화에 따라 규제체제의 변화와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됨.
 - 기존의 전력규제위원회가 에너지규제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 송배전망의 독립적 관리와 전력시장을 감시할 것임.
 - 전력의 품질은 송배전망 안정성에 달렸는데, 이는 EDF가 독점적으로 맡을 것이므로 현재와 똑같은 품질의 전력이 공급될 것임.
 - 소비자들이 친환경에너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Le Figaro, 2007.4.3)

4. 일본의 원자력산업 현황과 향후 과제

● 개요

- 3월 20일, 도쿄의 경제단체연합회관에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 일본 원자력산업협회 타카시 회장은 ‘원자력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

● 세부내용

- 일본정부는 ‘원자력 기본계획’을 통해 전체 발전량의 40%를 원자력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 ※일본은 현재 55기(약 5천만kW)의 원자로에서 전체 발전량의 약 30%를 총당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 '17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3기(약 1,700만kW)를 신설할 계획이나 원전 입지의 주민 반발로 실현에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
-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원자력산업 안전현장' 을 바탕으로 업계와 주민과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함.
- 원자력 발전의 비중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원전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이 주목 받고 있음.
 - 현재 일본의 원전 가동률은 71.9%로 이를 10% 향상시키면 원자로 5기를 신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미국의 원전 가동률 89.8%, 한국 92.5%
- 향후 일본 원자력산업계의 과제는 다음과 같음.
 - 핵연료 사이클의 확립: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이 '07년 11월부터 가동되며, MOX연료 가공공장은 '12년부터 가동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분장의 조속한 결정
 - 고속증식로('08년 운전 재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대형 실증로('25년), 상업로 건설('50년) 계획의 추진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 2007.4.6)

5. 제6차 가스수출국포럼 논의 결과

● 개요

- 카타르 도하에서 4월 9~10일 러시아, 알제리, 이란 등 주요 가스수출국들이 참여한 제6차 GECF(Gas Exporting Countries' Forum)가 열렸음.

● 세부내용

- 이번 GECF에서 각국 장관들은 12개국이 참여하는 '고위급 위원회' 를 구성 중이라고 밝힘.

- 이 위원회의 주요 과제는 현재의 가스가격 결정방식을 검토하고, 향후 10~15년간의 가스가격 결정방식을 연구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현재 석유가격에 연동되어 있는 가스가격을 부분적으로 분리하거나 석유에 비해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임.
- 또한 이 위원회에서는 국가간 정책공조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GECF를 공식기구화 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여 차기 GECF('08년 러시아 모스크바 개최)에 보고하기로 하였음.
- OPEC과 같은 가스 카르텔 구상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입장 및 관심사가 달라 협의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짐.
 - 이란, 베네수엘라는 가스 카르텔 창설에 적극적이었음.
 - 러시아와 알제리는 가스가격 결정방식 변경에 적극적이었음.
 - UAE와 카타르는 가스 카르텔 창설보다 가스 수급문제 및 세계 LNG 시장에 대해 관심을 보였음.

● 시사점

- 가스수출국 간의 입장차이로 OPEC과 같은 가스 카르텔 구상은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향후 추이는 '08년 러시아에서 열릴 차기 GECF에서의 논의를 두고 보아야 할 것임.
- 향후 GECF의 움직임에 따라 가스가격 결정방식 변경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연합뉴스, 2007.4.12), (World Gas Intelligence, 2007.4.11)



6. 스페인 Endesa社에 대한 인수합병 논란

● 개요

- 스페인 전력회사 Endesa에 대한 인수합병 논란은 스페인 가스공사인 Gas Natural의 적대적 인수제안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결말을 맺지 못하였음.
- 지난 4월 2일 독일 전력회사 E.ON은 스페인 전력회사인 Endesa 인수합병 계획의 철회를 발표하였으며, 한편 4월 10일 이탈리아 전력회사인 Enel과 스페인의 Acciona는 Endesa 측에 인수의사를 표명함.
- ※스페인 최대 전력회사인 Endesa는 1944년 창립된 스페인 국영기업으로 1998년 민영화되었으며, 현재 유럽 및 중남미 시장에서 활발하게 사업 추진
- ※Acciona는 건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유통업 등을 하는 스페인 기업임.

● 세부내용

- Gas Natural의 적대적 인수 제안
 - Gas Natural은 '05년 9월 주당 16.80 유로였던 Endesa의 주식을 21.30 유로에 100% 지분매입(총 225억4천9백만 유로) 하겠다는 적대적 인수를 제안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함.
 - 스페인 정부는 Endesa를 자국 소유로 유지하기 위하여 이 제안을 지지함.
- E.ON의 인수 제안
 - '06년 2월 E.ON은 Gas Natural보다 30%가량 더 높은 주당 27.55유로(총 291억 유로)로 최소 50.01% 지분매입 의사를 발표함.
 - E.ON은 Endesa를 통해 중남미 진출 및 유럽시장에서의 입지 확보를 노림.
- 스페인 정부의 개입
 - 스페인 정부는 이 인수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황금주를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함.

※황금주 : 1주만으로도 합병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적대적 M&A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특별한 주식

- 또한 스페인 정부는 E.ON측에 인수 성공시, 특정 발전원의 지분 및 경영권 양도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인수계획을 막으려고 함.
-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스페인 정부 결정의 부당성을 수 차례 경고하고 위원회의 권고조치를 불이행시에는 법적 조치도 고려한다고 밝힘.
- Endesa측은 Gas Natural보다 더 나은 제안이지만 Endesa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여 인수제안을 거절함.

• E.ON의 새로운 제안

- '06년 9월 Acciona의 Endesa 지분 보유량이 총 14.6%에 달함(총 지분 보유량이 25% 이하일 경우는 인수조건 공시이행 의무가 없음).
- Acciona의 지분 증가에 따라 위협을 느낀 E.ON은 Endesa 지분을 주당 35유로(총 371억 유로)에 매입 제안
- '07년 1월 Acciona의 Endesa 지분소유가 21.03%에 달함에 따라 E.ON은 인수가를 38.75 유로로 상향조정

• Acciona와 Enel 공동인수 제안

- Gas Natural이 매입의사를 철회하게 되어 E.ON측의 승리로 돌아가는 듯했으나, '07년 3월 Acciona는 이탈리아 전력회사인 Enel과 함께 주당 41유로를 제안하며 인수합병 계획에 돌입함.

※Enel은 Endesa 총지분의 22%를 보유하고 있음.

- 이에 맞서, E.ON은 인수가를 주당 40 유로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07년 4월 인수합병 계획의 철회를 표명함.
- '07년 4월 Enel과 Acciona는 현재 주당 40.43 유로인 Endesa의 주식을 41.30 유로에 인수하는 제안을 발표함.



● 시사점

- Endesa 인수 과정을 통해 치열해지는 에너지산업의 경쟁과 최근 유럽 각국 정부들의 자국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제 국수주의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EU의 단일 에너지시장 구축 및 경쟁 제고라는 정책 추진과 회원국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후 EU 집행위원회의 대응조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Reuters, 20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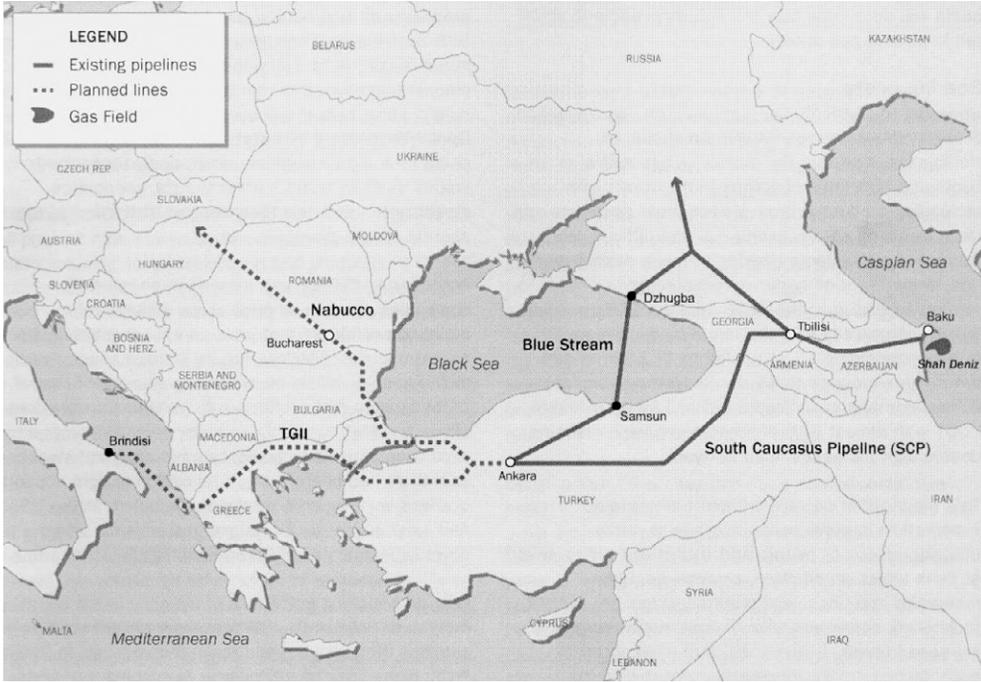
7. 미국의 Nabucco 파이프라인 건설 지지

● 개요

- 미국은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제르바이잔의 천연가스를 러시아를 우회하여 유럽으로 수송하는 TGI, Nabucco라인 건설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충분한 양의 가스를 적절한 시기에 유럽으로 공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세부내용

- IEA가 논의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가스의 對유럽 수송 경로는 ①카스피 해 동부 연안(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바쿠 수송로 ②러시아를 우회하는 터키~유럽의 수송로임.
 - 수송로 ②에는 TGI(터키-그리스-이탈리아)와 Nabucco(터키-불가리아-루마니아-헝가리-오스트리아)파이프라인 두 가지가 있음.
 -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 중앙아시아 가스 공급국들은 세계시장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중앙아시아의 對러시아 가스 수출 가격은 \$100~\$130/1,000 m³인 반면, 러시아의 對EU 및 터키 가스 수출 가격은 \$200~\$300/1,000 m³에 달함.



- 유럽에 비해 큰 이득이 없는 미국이 이 두 파이프라인 건설을 적극 지지하는 이유는 러시아 및 이란을 소외시키기 위한 것임.
- 이에 대해, 러시아는 Blue Stream시스템(러시아-터키)의 수송용량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진척이 없는 상태임.
 - 이에 대해 서방 정부 및 기업들은 러시아의 Blue Stream시스템 확장 의도는 Nabucco 파이프라인 건설 방해 혹은 Nabucco 시스템 내에서 가스프롬의 입지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이란 역시 Nabucco에 새롭게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Nabucco 프로젝트 초기에는 이란산 천연가스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으나, 이란 핵문제가 불거진 '06년 6월 이후 Nabucco 컨소시엄은 아제르바이잔에만 심혈을 기울여 왔음.
- 미국은 유럽시장에서 러시아 및 이란산 가스의 판매확대를 원치 않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이 유럽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가스를 생산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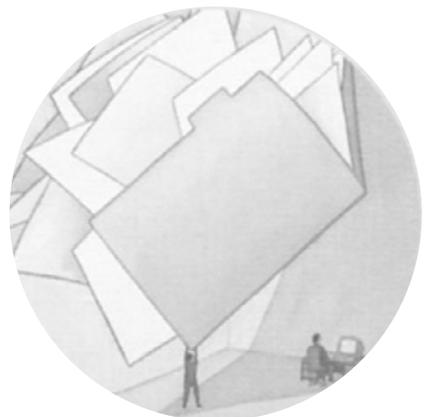


- 2월 14일 IEA 회의 직후 미국 측은 '아제르바이잔은 '12년 200억 m^3 를, '16년 300억 m^3 를 수출할 수 있다' 고 발표하였으나, 미국의 기대치는 아제르바이잔 측 발표와는 다름.
- Shah Deniz가스전은 아제르바이잔의 유일한 가스수출 프로젝트로, 아제르바이잔에 따르면 '12년 120억 m^3 , '15~'16년에는 160억 m^3 가 생산될 예정임.
-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TGI/Nabucco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카스피 해 동부연안(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유럽으로의 가스 수송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시사점

- 미국의 개입으로 카스피 해 천연가스가 유럽시장에서 세계시장가격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카스피 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른 우리의 자원개발 진출 전략의 보완이 요구됨.

(Energy Economist, 2007.3)



해외에너지 정책/시장 동향



IPCC 기후변화 보고서 발표

-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 제2분과위원회는 6일 브뤼셀에서 제4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중 두 번째인 '기후변화 영향, 적응, 취약성'(Climate Change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요약본을 발표함.
 - ※ 지난 2월 제1분과위원회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는 인간이 초래한 것이며 금세기 내에 지구의 온도가 섭씨 1.8~4.0도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
- 동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가 자연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둠.
 - 지구 기온이 '90년보다 섭씨 1.5~2.5도 증가할 경우, 현재 지구 생물종의 20~30%가 멸종 위험에 처한다고 경고함.
 - 인류 또한 전염병 확산, 물 부족, 기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범람으로 큰 피해를 받음.
 - IPCC 의장 파차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낮은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으로 우려함.
- IPCC는 5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초점을 둔 제3분과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BBC News, 2007.4.6)



미주개발은행(IDB) 바이오연료에 총 \$30억 투자 예정

- 미주개발은행 총재 모레노는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에너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남미 국가들에 \$3억의 차관 제공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확대해 갈 것이라고 함.



- IDB는 브라질정부가 추진 중인 \$5억7천만 상당의 3개의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며, 그 밖의 여러 프로젝트에도 \$20억 정도의 차관을 제공할 계획을 구상중이라고 함.
 - 이번 투자로 '20년까지 에탄올 생산량은 3배로 증가할 것이며, 세계 바이오연료 연구의 중심지가 되려는 브라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에 차관제공을 계획 중임.
 - 콜롬비아의 경우, 연간 10만 톤 규모의 바이오연료 생산 회사에 약 \$2억의 차관을 지원할 계획임.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07.4.2)



코노코 필립스사와 베네수엘라간의 지분 양도 협의

- 지난해 미국 코노코 필립스의 멀바 회장과 베네수엘라 라미레스 자원부 장관은 베네수엘라의 아마카(Hamaca), 페트로수아타(Petrozuata)와 코로코로(Corocoro)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양도를 논의함.
 - ※코노코 필립스사는 현재 오리노코의 아마카 프로젝트의 4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쉘브론사와 베네수엘라 석유공사 PDVSA가 각각 30%씩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는 오리노코 프로젝트에서 국가의 지분소유를 60% 이상으로 늘리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음.
- 멀바 회장은 코노코 필립스 측이 베네수엘라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5월 1일까지 베네수엘라 석유공사에 모든 권한을 넘길 계획이라고 함.
 - 현재까지 보상 문제에 관하여 논의 중이며, 아직 합의점을 찾지는 못하였음.

(Reuters America Latina, 2007.4.2)



UAE, 호르무즈 해협 우회로 확보

-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새로운 송유관 건설사업이 독일의 ILF社로 낙찰됨.
 - 이 송유관은 아랍에미리트 내륙지방의 합산(Habshan)에서 푸자이라(Fujairah) 항까지 320km에 달하며 150만 b/d의 수송이 가능함.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위협이 계속됨에 따라 230~240만 b/d를 수출하는 UAE는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이러한 우회로 건설을 계획하였음.
 - 완공 시 호르무즈 해협 통과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UAE의 석유수출비용 절감이 기대됨.

(Al-jazeera, 2007.4.3)



카타르, 벨기에로 천연가스 수출

- 카타르와 벨기에의 20년 장기가스공급계약에 따라 3월 29일 벨기에의 지브루즈 항에 14만5천 톤의 천연가스가 도착함.
 - '04년 6월 Fluxys LNG社와 매년 340만 톤, Distrigas社와는 '05년 매년 약 200만 톤을 계약한 바 있음.
- 이번 천연가스 수출을 계기로 카타르는 유럽가스시장의 중요 공급지인 벨기에를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아 유럽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임.
 - 천연가스 수출시장 다변화를 목표로 하는 카타르의 장기프로젝트는 유럽의 에너지안보와 친환경에너지보급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Al-Sharq, 2007.4.2)



러시아, 신규 송유관 건설계획

- 러시아 산업에너지부는 프리모스크의 발틱항을 경유하여 인접국가 벨로루시를 우회하는 새

로운 송유관 프로젝트 발틱파이프라인시스템-2 (BPS-2)를 발의함.

- BPS-2는 길이 1,200km, 수송용량 1백만 b/d이며, 기존 유네카지역의 드루쉬바 송유관을 프리모스크 수출 터미널까지 연결하는 계획임.

※발틱파이프라인시스템(BPS)은 러시아 북서지역의 티만-페초라 유전과 서시베리아 유전을 북유럽시장과 연결하며, 현재 수송용량은 연간 7,500만 톤임.

- 동 계획은 인접국가 벨로루시를 경유하는 송유관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됨.

- 러시아-벨로루시 간 석유 통과세와 수출세에 관한 분쟁으로 유럽행 석유수송이 3일간 중단된 바 있음.

- 국영 송유기업인 트랜스네프트(Transneft)사는 정부의 승인 이후, 이르면 4월 착수가 가능하며 18개월 이내에 완공이 가능하다고 전망함.

(Moscow Platts, 2007.4.13)



러시아-그리스 간 가스공급계약 24년 연장 협의

- 4월 11일 러시아와 그리스는 가스공급계약을 '40년까지 24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그리스시장 입지 강화 기회로 평가됨.

- '03~'06년간 그리스의 가스소비는 35% 증가하였으며, 산업용 및 가정용 소비의 증가와 가스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따라 '10년까지 현재수준의 2배인 65억 m³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리스는 불가리아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통해 총 수입량의 80%에 상당하는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금년 중반부터 Caucasus-Turkey 가스관을 통해 가스수입을 병행할 예정임.

- 유럽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의존도의 증가와 과거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에너지안보의 문제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함.

- 러시아-그리스 간 협의가 도하 가스수출국포럼에서 가스수출가격 조정기능을 강화하겠

다는 발표 직후에 나왔다는 사실 또한 러시아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서방국의 우려를 증폭시킴.

(MosNews, 2007.4.12)



가스프롬, 영국 시장점유율 확대노력

●가스프롬이 작년에 인수한 영국기업 Penine Natural Gas社의 고객수는 지난 1년간 3배로 증가하였으며 영국 가스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명소를 대상으로 마케팅 노력을 하고 있음.

- 가스프롬은 이미 런던의 York Minster, Headingley 크리켓 경기장, City Point Tower를 고객으로 확보하였으며, 식당체인인 Chez Gerrard, 유통업체 Bhs, Sunderland 축구클럽 등이 최근에 고객이 됨.

●가스프롬은 '10년까지 영국시장 점유율을 2%에서 10%로 증대할 목표를 세움.

(www.bbj.hu, 2007.4.12)



프랑스 아레바, 미국에 유럽형기압경수로(EPR) 건설

●아레바는 미국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의 합작회사인 유니스타 뉴클리어를 통해 미국에 제3세대 원자로 EPR을 건설하기로 발표했음.

- 미주리州的 전력회사인 아메켄에서 발주함.

●미국 EPR 상업운전 개시는 '11년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첫 번째 EPR인 핀란드 울킬루오토-3호의 완공은 '10년 예정임.

※프랑스 정부는 4월 11일 EdF의 플라망빌지역 EPR 건설을 승인하였으며, '12년 완공 예정임.

(La Tribune, 2007.4.6)



걸프국가들, 원자력 에너지 기술 보유 희망

- GCC(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은 평화목적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기 위하여 노력 중임.

※GCC(Gulf Cooperation Council)는 1981년 5월 25일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정상회담에서 결성된 지역협의체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걸프지역 6개국으로 구성됨.

- GCC 국가들은 전력, 담수사업, 의료, 농업 등 사회·경제적 목적으로 원자력기술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적 체계와 기준에 부합되는 원자력기술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계획함.

- IAEA 사무총장은 4월 12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GCC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다음 달에 전문가로 구성된 IAEA 대표단을 GCC 국가들로 보낼 것이라고 밝힘.

- 이 회담에서는 IAEA와 GCC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환경보호와 지역안보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용 원자력기술 프로그램개발 문제를 다룰 예정

- 한편, GCC 국가들의 이러한 선언 후, 이집트가 원자력 기술이용에 대한 의사를 피력함.

(Kuwait News Agency, Arabic-Xinhua 2007.4.12)



중미국가들, 멕시코에 정유시설 건설 투자 요청

- 중미국가들은 멕시코가 36만 b/d의 석유 생산이 가능한 정유시설 건설에 투자할 것을 요청함.

- 원유 2/3는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인 페멕스(Pemex)社로부터, 그리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부터 공급 받을 예정임.

- 약 \$80억이 투자될 이 프로젝트의 예상 기간은 20년이며, 건설지역으로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파나마가 유력시 되고 있음.

- 인도의 Reliance Industries Limited, 중국의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 미국의

Valero Energy Corp., 일본의 Itochu Corp.이 건설업체로 거론되고 있음.

- 중미 정유시설 건설 프로젝트는 중미 국가 및 멕시코, 콜롬비아의 정상들이 참여하게 될 Plan Puebla Panama(PPP) 회담에서도 다루어질 예정임.

※ PPP는 멕시코남부 7개주와 중미 7개국을 연결하여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인프라 구축, 중미지역 에너지 개발, 정보통신 기반 건설 등의 8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America Economica, 2007.4.11)



주간 국제유가 동향

- 4월 셋째 주(4/16~4/20), 국제 현물유가는 Oklahoma Cushing지역의 원유재고 증가와 정유사들이 정제가동률을 늘릴 것이라는 발표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이란의 우라늄 농축 및 나이지리아 대선 관련 지정학적 불안과 휘발유재고 감소 소식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며 보합세를 나타냄.

- 지난 화재로 가동 중단된 Valero Energy사의 Mckee 정제시설의 복구가 지연되면서 Cushing지역의 WTI 원유재고가 기록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며 주초 유가하락으로 이어짐.
- Shell과 Valero Energy 등의 미국 메이저 정유사들은 휘발유 성수기를 앞두고 복구 중인 정제설비의 가동을 재개하여 휘발유생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복구 지연에 따라 가동 정상화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나이지리아 Forcados지역의 원유생산이 6월내 재개될 것으로 전해졌으나 대선을 앞두고 원유생산 지역에서 폭탄테러와 총격전으로 유혈사태가 발생하여 원유 수출의 차질이 우려됨.
- 유럽연합은 이란에 대해 우라늄 농축과 제재조치를 동시에 중단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란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수요일 EIA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정제가동률이 90.4%를 기록하여 휘발유생산이 점차 증



가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고장으로 인한 정제시설 가동중단 소식이 연이어 보도됨에 따라 휘발유재고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4월 셋째 주 Nymex 원유선물 가격은 나이지리아 Forcados지역의 원유생산이 재개될 것이란 소식과 Cushing지역 원유재고 증가 및 차익실현 매도세로 주 중반까지 하락세를 나타내었으나 휘발유재고의 감소와 나이지리아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유혈사태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냄.
-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4월 20일 발표한 4월 17일 기준 Nymex의 대형 투기자금에 의한 원유(WTI) 선물거래 순매수 규모는 전주대비 7.5% 증가한 80.82백만배럴을 기록하였음.
- Nymex-WTI 최근월물 가격은 4월 17일 \$63.10로 전주대비 2.0%의 상승하였음.

(주간 국제유가 및 시장 동향, 115호)



국내외 정책연구

1. '07년 IPCC 기후변화 요약 보고서

● 개요

- 이 보고서는 1970년부터 최근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전 세계 130개국에서 모인 과학자 2,500명이 6년동안 수행한 연구결과임.
- 기후변화가 자연 및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이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및 취약성을 연구하였음.

● 세부내용

- 기후변화로 모든 대륙과 대부분 대양의 자연계 및 인간생활이 영향을 받음.
 - 지난 100년간 지구표면의 온도가 섭씨 0.74도 상승(지난 50년간의 온도 상승폭은 100년 간의 상승폭의 대략 2배)
 - 남·북극의 빙하지역의 점진적인 감소 및 해수면이 '61년부터 '03년까지 매년 1.8mm씩 상승하고, '93년부터 '03년까지는 매년 3.1mm씩 상승하여 몰디브나 키리바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함.
 -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해양의 산성화 정도가 높아짐.
- 기후변화가 자연과 인간생활에 미칠 영향
 - 온도상승 및 기상이변으로 물 부족 및 빈번한 홍수 발생
 - 북반구 지역에서 섭씨 1~3도 상승으로 곡물의 생산 증가가 예상되지만 열대 지역은 곡물의 생산 감소로 기아에 노출 가능
 - 지구표면 온도가 섭씨 1.5~2.5도 이상 상승하면 현존 동·식물의 약 20~30%가 멸종 위기



-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지속되면 해양의 산성화가 가속화되어 해양 생태계의 파괴가 야기됨.

• 대륙별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한 전망

- 아프리카 : '20년에 온난화로 7천5백만~2억5천만명이 물 부족에 노출

- 아시아 :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기후변화로 물이 부족하여 '50년에는 수십억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호주 및 뉴질랜드 : '30년에 강수량 감소 및 증발량의 증가로 물 부족 발생과 해수면 상승

- 유럽 : 폭염, 빙하의 감소, 계절 길이의 변화 및 동·식물종의 서식지 이동

- 남미 : 온도상승으로 아마존 동부지역의 식물종 변화와 일부 동·식물종의 멸종 위기

- 북미 : 곡물 생산 증대(5~20%), 질병 및 산불의 위험 증대 및 도시지역의 지속적이고 빈번한 더위 경험

- 극지방 : 빙하 감소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

● 시사점

•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 에너지효율제고, 기술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R&D 확대 등을 들 수 있으며, 향후 포스트-교토체제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IPCC, 2007.4.6)

연구원 동정

1. 국제회의 참석

- 아-태 지역 에너지안보협력회의 참석 및 주제 발표(일본 동경, 4/16~19)
- 일본 IGES 주관 기후변화 정책연구 전문가회의 참석(일본 하마야, 동경, 4/17~20)
- 2007 동북아 석유포럼 준비회의 참석(중국 북경, 4/22~24)

2. 언론 활동

-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농업개방에 대처하자” 기고(4/18, 아시아경제)
- “에너지산업 ‘맷집’ 을 키울 때다” 기고(4/24, 한겨레)
-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처하자” 기고(4/25, 아시아경제)

회원제도안내

구분	제공자료(발행주기)	특기사항
국내 일반 회원 (연회비: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Energy Insights (격주간) 에너지통계월보 (월간) 에너지 포커스 (분기) 에너지통계연보 (연간)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연간) Korea Energy Review Monthly (KERM) (월간) Energy Info. Korea (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 발송 배포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주요 학술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 초청 에너지 및 자원 분야 의문사항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소개
해외 회원 (연회비:2천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rea Energy Review Monthly (KERM) (월간) Northeast Asia Energy Focus (분기) Korea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연간) Energy Info. Korea (연간) 기타 영문보고서 (부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우편 발송 배포
국내 포럼 회원 (연회비: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Energy Insights (격주간) 에너지통계월보 (월간) 에너지 포커스 (분기) 에너지수요전망보고서 (분기) 에너지경제연구 (반기) 에너지통계연보 (연간) 정책연구보고서 (연간)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연간) 국가에너지기본계획보고서 (5년) 세미나 자료 (부정기) Korea Energy Review Monthly (KERM) (월간) Northeast Asia Energy Focus (분기) Energy Info. Korea (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 발송 배포 에너지경제연구원 인터넷포럼 회원 전용 자료실을 통한 에너지 및 자원 정보 제공 (회원전용 ID 및 Password 부여)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주요 학술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 초청 에너지 및 자원 분야 의문사항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소개

● 가입 문의 : 교육홍보팀 (031-420-2281)회원 제도 안내

